

# 나주시 천연염색 천녀의 비끼



News Letter of the Naju Foundation of Natural Dyeing Cultural

December 2006

## “조직화가 시급하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 보다는 열 사람이 힘을 합했을 때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천연염색을 하시는 분들도 개인보다는 많은 분들이 모여 힘을 합했을 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통형명이라고 불릴 만큼 유통 시스템 자체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부분에서 조직의 정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천연염색을 하시는 분들도 조직화가 필요시 되고 있다.

현재 조직화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천연염색처럼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이 필요한 플라워디자인의 경우 20여개의 사단법단체가 있으며, 차 분야에도 다수의 사단법단체가 있으며, 꽃집들은 뜻을 같이하는 샵이 연합한 후 통일된 브랜드와 영업계획 아래 대기업처럼 조직적이며, 효율적인 공동광고, 공동 마케팅기법 개발, 공동 고객 확보, 자재의 공동구매는 물론 공통적인 이미지를 어필하는 등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화함으로써 개인적인 광고부족, 홍보물 제작비 부족, 디자인 정보 및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능력 결여의 문제점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하고 있다. 또 협회나 조직의 본부에서 교육에서부터 마케팅, 직원接客 메뉴얼 작성, 상품 구성, 경영노하우 제공, 경영분석 등을 해 줌으로써 기술지도와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천연염색 업계는 어떨까? 기술개발과 보급,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격제도, 인증제 및 표준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닌데도 조직화는 되어 있지 않다.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과 인증제의 경우 일부 단체나 업체에서 나름대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인증을 시도하고 있지만 신뢰성도 약하고, 일부이지만 이해관계에 얽힌 다른 단체나 업체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산업분

류코드측면에서도 그렇다. 천연염색산업은 국내외 5조 시장이 넘는 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분류코드가 없어서 화학염색산업 분류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연염색은 화학염색과는 전혀 다르게 환경폐수가 없고 친환경 웰빙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천연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이나 산업체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가령, 은행이나 신용보증평가에서도 사향산업(염색산업으로 분류)으로 분류되어 마이너스점수가 추가되고, 환경폐수산업으로 평가되어 외국수출시 환경폐수 부담금이 추가되며, 환경규제법을 통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하다. 조직화가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폐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천연염색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통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천연염색산업 분류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민원을 넣는 방법 밖에는 대응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천연염색 업계도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화가 되고, 조직의 본부에서는 조직 전체를 위해 기술개발, 교육, 광고활동이나 정보수집 활동을 행하고, 축적된 것을 직원들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천연염색과 인연을 맺고 있는 한분 한분들이 관련 행사나 연구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2006천연염색 100인 소품 기획전’은 전국에서 천연염색 전문가 100분의 작품이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에서 전시되어 만나고, 하나의 도록에서 서로에 대한 정보가 함께 공유되는 만큼 조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 천연염색 메카로서 주목받고 있는 나주시



▲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염색전시 및 체험관인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2006년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나주시천연염색 문화관을 방문하면 전국의 학계와 단체 및 업계의 지명도 있는 천연염색 작가 100여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지방의 도시에서 국내의 천연염색 저명 작가 100여명의 작품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주시의 하거와 현재를 알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다. 나주시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며 생활해 온 지역으로 나주평야를 더욱 기름지게 만들고 교역의 통로 역할을 해왔던 영산강 유역에는 고대국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특히 용관고분으로 대표되는 영산강 유역의 마한 유물은 아직까지 수수께끼의 역사로 남겨 놓을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나주시에는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유물과 전통 문화가 계승되고 있다. 그 중에서 천연염색은 일찍부터 영산강 유역의 도시와 인근에 재배된 뽕나무, 목화 및 쪽을 바탕으로 발달되었다. 그 전통은 운병은 천연염색장(중요무형문화재 115호), 정관채 천연염색장(중요무형문화재 115호)에 의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난 2002년에는 현대화된 동양 최대규모의 천연염색업체인 (주)세노코가

나주시 동수동에 설립되었고, 2006년 5월에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재단법인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에 이어 9월에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염색문화관을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나주시는 이렇게 천연염색분야에서 유일하게 전통의 맥을 잇는 중요무형문화재 두 분이 계시고, 산업화된 천연염색기업, 천연염색연구회와 공방, 천연염색을 가르치고 있는 동신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그리고 천연염색에 관한 전시, 교육 체험을 아우르는 장이자 천연염색 산업 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재단법인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천연염색 메카로서의 위상을 갖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



②

- ① 중요무형문화재 115호 정관채 염색장의 쪽 염료제조장 및 공방
- ② 중요무형문화재 115호 운병은 염색장의 쪽 염료제조장 및 공방

- ③ 2000년의 시간 여행, 수수께끼의 역사로 남아있는 고분(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 ④ 나주시 동수동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현대화된 천연염색업체 (주)세노코



③



④

### 천연염색 교원직무연수교사 모집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은 2006년도 동계 특수 분야 교원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6년 12월 11일부터 교원직무연수(분야는 표 참조)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정원은 각 분야 모두 40명이며 선착순이다. 신청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홈페이지(naturaldyeing.or.kr)를 참조하고, 문의 전화는 061-335-0098이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팩스(061-335-0092)로 접수하면 된다.



직무분야	천연염색 디자인 교육을 위한 중급 연수	생활 압화와 플라워디자인 교육	천연염색과 창작섬유 공예 교원 연수	천연염색디자인 교육을 위한 초급 연수
교육기간	2007년 1월 8일(월)~ 1월 19일(금)	2007년 1월 8일(월)~ 1월 19일(금)	2007년 1월 15일(월)~ 1월 26일(금)	2007년 1월 22일(월)~ 2월 2일(금)
시 간	60	60	60	60
교육비	15만원	18만원	15만원	15만원
주요과목	염료식물, 염추추출, 교염, 납방염, 실크스크린, 구타방염, 블록프린팅 등	식물표본만들기, 양초작품, 유퍼피언플라워 디자인, 소품만들기, 압화 액세서리 만들기 등	규방공예, 천연염색, 패션 및 실용 소품 만들기, 자수, 매듭공예 등	천연염색 기초, 천연염색, 복합염, 천연염료, 매염제, 한지염색 등
모집정원	40	40	40	40

### 여니앤브라운, 천연염색 인형류 출시

천연염색 전문업체인 여니 & 브라운(www.besh.co.kr)에서는 천연염색 인형류를 출시하고 있다. 베네지고리, 손, 발싸개, 기저귀세트, 우주복, 백일복 등 천연염색 유아복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여니 & 브라운의 제품은 황토, 쑥, 숯, 오배자 등으로 염색한 것으로 세련된 디자인, 꼼꼼한 바느질 등이 돋보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여니 앤 브라운에서 출시한 황토 염색한 인형류

### 천연염색 전문가 100인의 작품 전시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기획 전시실에서는 전국의 천연염색 전문가 100인의 소품을 전시하고 있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의 2번째 기획전인 '2006 천연염색 100인 소품 기획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획전은 12월 12일(화)부터 12월 23일(토)까지인데, 국내 최초로 천연염색 작가 100인의 작품을 한 자리에 전시한 만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 2006년 천연염색 100인 소품기획전(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기획전시실)

해림규방공예 초대전 성황리에 끝나



▲ '손길 그리고 사랑' 해림규방공예전 관람객

2006년 12월 1일(금)부터 12월 10일(일)까지 '손길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규방공예 초대전을 가졌다.

(재)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사)한국복식학재단-해림공방을 초청하여

광주북구 전통공예학교 졸업작품전

광주북구청에서 주관하는 광주북구전통공예학교에서는 2006년 12월 22일(금)부터 2007년 1월 26일(금)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졸업 작품전을 갖는다. 졸업 작품전에는 전통을 이어가는 천연염색, 탕화, 도자기 및 소목이 전시될 예정이다.

'천연염색 교복입고 학교가다' 전시회 성황리에 끝나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안성맞춤박물관에서는 '천연염색 교복입고 학교가다' 주제로 중앙대학교 의류학 석·박사과정생 8명이 만든 작품 18점(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의복)의 전시회가 있었다. 작품에는 치자, 황벽, 오배자, 청대, 소목, 쑥 같은 염색재료의 쓰임새를 조명하고, 유치원을 상징화한 노란색, 초등학교 양호실을 상징화한 파랑·회색, 그리고 청소년들을 상징화한 보라·연갈색 등 색깔로 영역을 구분하여 전시한 것으로 시립박물관 지역대학이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시회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다.

전남 중등미술교육연구회 워크샵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에서는 12월 11일에 전남 중등 미술교원의 워크샵을 가졌다. 이날 워크샵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천연염색은 이론하 실습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참석 교사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찾아가는 우리한복' 심포지엄과 패션쇼

우리 옷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한복의 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찾아가는 우리 한복' 특별강연 및 패션쇼가 2006년 11월 28일(화)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문화컨텐츠홀에서 있었다. 이영희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을 곁들인 이번 미니 패션쇼는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천연염색연구회 평가회 가져

나주시천연염색연구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금)에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에서 천연염색연구회 평가, 회원정비 및 실크스카프를 이용한 족하 황토염색 실습 등을 가졌다. 동연구회는 12월 11일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체험관에서 워크샵을 가졌다.

천연염료 및 염색 제품 위탁 판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천연염색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문화보급 및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천연염색제품을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천연염료 및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판매장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061-335-0160

발행인 : 신정훈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이사장, 나주시장이 사: 김왕식, 김태구, 이상필, 정경진, 정관체, 장흥기, 홍철식 편집인 : 장흥기, 허복구, 김윤희, 이재연, 최정락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NAJU FOUNDATION OF NATURAL DYEING CULTURAL

(우.520-931) 전남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163번지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내 Tel. 061-335-0091, 335-0098, Fax 061-335-0092 http://www.naturaldyeing.or.kr